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5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이시며 참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위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가야할 길을 놓치고 제자리를 맴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가 되길 원합니다. 여름의 한 가운데서 가을의 결실을 내다보는 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지구촌의 축구 축제가 한창입니다. 공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축제의 장을 통하여 온 나라들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에도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정의와 평화, 생명과 환경의 문제에도 마음을 같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빌4:6-7 인도자
 ♣ 교 독 문 102. 나라 사랑(4)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전수정 학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138(통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다함께
 성경봉독 I. 삼하6:16-19 김지원 학생
 II. 마5:9-12 권미정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씀 I.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성운전도사
 II. 평화군(平和軍) 김기석 목사

- 찬 양 516(통265). 옳은 길 따르라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를 내 밖에서만 찾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미움과 욕심을 비워내고 사랑과 헌신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말씀 : 김기석 목사	히브리서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문홍일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최문희 선생	이주희 학생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권 순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박범희 박규석 박미영 권미숙 임영선
	헌금위원	김인걸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세상에서 제일 뻘속 편한 놈

사람들 속에서 튕겨 나와 유별나게 살다 보니 늘 외로웠다. 낮이면 정신 없이 초원으로, 오름으로 싸돌아다니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밤이면 짙은 필름을 들여다본다. 외로움을 느낄 짬도 없이 분주하게 사진을 찍다 보면 잡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마음이 평화롭다.

한겨울이면 김치찌개, 비 오는 날이면 얼큰한 해물뚝배기 생각이 간절하다. 필름이나 인화지를 사러 제주 시내에 나갔다가 빵집 앞을 지날 때면,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해도 차비밖에 남지 않은 주머니 사정이고 보니 걸음을 재촉한다. 한두 시간 거리는 콧노래 부르며 흥겹게 걸어다녀 버스비를 절약한다. 눈보라 치는 한겨울에는 전기장판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늘 마음에 걸려 한밤중에만 사용한다. 전화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정기적으로 통화 정지가 되고, 답답함을 참지 못하면 전화국에 사정을 한다.

궁핍함에 길들여진 탓에, 바쁘고 번잡한 도회지에선 누릴 수 없는 시간과 자유만큼은 넉넉하다. 그리고 그 덕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생활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도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다. 세상의 밝은 부분과 아름다움만을 보고, 눈치를 보지도 싫은 소리를 듣지도 않는다. 나의 궁색한 생활은 삶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과 아귀다툼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하루를 선물한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진가나 화가, 조각가들은 이미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부러워한다. “밥벌이 못한다고 비웃는 거요?” “떡여 살릴 처자식 없으니 작품 팔 걱정 안 해도 좋고, 끼니 떨어지면 이 집 저 집 가서 시장기 면하면 되고, 작업하기 싫으면 서울 가서 며칠 푹 쉬었다 오면 되니, 대한민국에서 너만큼 팔자 좋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너야말로 상팔자다.”

끼니는 굶어도 꿈쳐둔 돈 툭툭 털어 일 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가졌다. 누구를 위한 전시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전시할 사진을 골라 액자를 손수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준비하지만 어느 누구도 일부러 초대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평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아서다. 몇 사람이 다녀갔고, 몇 작품이 팔렸는지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또 디스플레이가 끝나면 웬만해선 전시장에 나가지 않는다. 작품들을 떼어내기 전까지

홀로 지내며 많은 생각에 잠긴다. 그때의 생각을 거름 삼아 다음 작품에 몰입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게 우선이다. 나 자신이 흡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느끼고 표현할 때까지는 사진으로 밥벌이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속일 수는 없기에 늘 자신에게 진실하려 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만을 찍으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메라만 좋으면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전업 사진가로 살아가기도 힘들다. 사람들은 뚜렷한 벌이도 없이 중산간 마음에 처박혀 십 년을 버텨온 것도 기특하건만, 카메라 메고 무위자연하면서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개인전을 여는 나를 부러워한다. 밥벌이도 안 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혼자 살아가는 나를 보고 세상에서 최고로 बैठ속 편한 놈이라고 말한다. 의료보험증이나 신용카드 하나 없이 살아가는데도 팔자 좋은 놈이라고 한다.

섬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쓰러워한다. 그러면서 김치도 가져다주고, 푸성귀나 호박 등 철따라 갖가지 야채를 나누어준다. “언제꺼정 촌구석에 처박혀 청승맞게 살꺼까? 시내 출입하명 벗들과 어울려사 장가가주. 허구헌 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난 이추룩 살주.” “아직도 사진 칠 것이 남아수짜? 도대체 몇 년이우짜? 무덤 찍고 동자석 찍는데 경해도 돈이 됴수짜?” ……

우유 한 잔 마실 여유는 없지만 필름과 인화지만큼은 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양식이 떨어지는 것은 덤덤하게 넘길 수 있어도 필름과 인화지가 떨어지면 두렵다.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괴로움은 작업하며 견딜 수 있지만, 필름이 없어 작업을 못하는 서글픔만은 참지 못한다. 그럴 때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잠 못 이루며 서성이다가 밖으로 나간다. 초원으로 바다로, 밤이슬을 맞으며 헤맨다. 그렇게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느껴지는 신명이 있으니 살아 있음에 감사한다.

재료가 없어 작업을 못할 때에는 삶의 회의에 빠져 낮이 나간 사람처럼 망연자실해 있다. 그럴 때면 나를 지탱하고 있던 뿌리들이 잘려나가 줄기만 남는다.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는다. 필름이나 인화지가 바닥을 드러낼 때가 가까워지면 애간장 태우며 기다렸던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고도 카메라 대신 눈으로 찍고, 마음에 인화를 한다. 내일은 더 좋은 상황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 마음을 달랜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기다린다. 밥벌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사진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 마/음/으/초/읽/는/글

여름에는 저녁을

오규원

여름에는 저녁을 / 마당에서 먹는다
초저녁에도 / 환한 달빛

마당 위에는 / 멍석
멍석 위에는 / 환한 달빛
달빛을 깔고 / 저녁을 먹는다

숲 속에서는 / 바람이 잠들고
마을에서는 / 지붕이 잠들고

들에는 잔잔한 달빛 / 들에는 / 봄의 발자국처럼
잔잔한 / 풀잎들

마음도 / 달빛에 잠기고 / 밥상도 / 달빛에 잠기고

여름에는 저녁을 / 마당에서 먹는다
밥그릇 안에까지 / 가득 차는 달빛

아! 달빛을 먹는다 / 초저녁에도 / 환한 달빛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강인식 김정숙 권미숙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이예정 이한림 김명희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이어진 허호범 박성실 박시내 박병구 김정애 김민화 정한구 왕영순
 이영우 장원호 박성희 곽새롬

월정헌금: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김남홍 선우영 김용태 박정숙 김종철 고영애
 박옥순 정완수 김재광 이현순 황의일 이현숙 이광섭 최재욱 이수정
 백성래 이경남 배부례 이영우 무명

감사헌금:

변재민 이소혜 유은정 신진식 전성오 박병구 배삼순 김필순 유은정
 무명7

녹색꿈헌금:

최경미 박병구 김남홍 선우영 박현진

생일헌금:

이인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조순덕	정두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차혜심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박정숙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심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송의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권명자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시영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김혜권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윤정화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현선	조항미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분기점** :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2. **임원회** : 2부 예배 후에 6월 임원회가 있습니다.
3. **냉난방 헌금** : 맥추감사절인 다음 주일(7월 4일)에 냉난방 헌금을 드립니다.
4. **은총의 숲 방문** :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에 조성 중인 '은총의 숲' 사업을 위해 김기석 목사가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몽골에 다녀옵니다.
5. **신앙실천** :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십시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다음 주 : 빌립보 속)

* 설거지 봉사 : 권혁신 이광욱 이준하 (다음 주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